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입찰 공고

빛그린산단 일원에 부지 60만㎡·건축면적 8만6215㎡ 12월17일 마감... 촉박한 일정 연내 착공 무산 가능성도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완성차공장 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측은 오는 12월 17일 입찰 마감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본계약 체결 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과 건축허가 획득 등 일정이 촉박해 당초 공언했던 '연내 착공'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7일 공장 신축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위치는 광산구 빛그린산단지구 1공구(덕림동) 일원이다. 부지면적은 60만4508㎡, 건축면적 8만6215㎡, 연면적 11만7335㎡ 규모다. 자동차 생산 설비 구축을 제외한 건

축 공사다.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최저가·내역입찰 방식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중 도목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다. 2019년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10위 이내 건설사, 자동차공장 시공 경험 건설사이다. 공사 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약 16개월로 예정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2일 오후 4시까지 참가의향서를 받고, 오는 13일 빛그린산단에서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13일부터 다음달 17일 오후 4시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입찰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

를 참가해야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하도급 관련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하도급공사 금액 6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소재 시공·건설자재·인력·장비 등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측은 입찰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17일 입찰 마감 후에도 우선협상자 선정, 적격성 등 심사, 본계약 체결까지 업무가 남아 있어 연내 시공사 선정을 거쳐 착공이 이뤄질 지에 대해선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모두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한 공장이 광산구와 함평에 걸쳐 들어선다는 점에서 공장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마주할 공산도 크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이번 공장 신축공사 입찰자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며 "점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은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계획이다.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같은 해 9월 양산 목표를 갖고 있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현대자동차, 광주은행, 산업은행, 지역건설사 및 자동차부품 업체 등 36개 기관·기업 등이 23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다. 회사는 공장부지 매입과 건립, 생산라인 구축 등 사업을 위해 필요시 최대 3454억원을 차입 조달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국회서 마한역사문화 발전 학술포럼 13일, 마한문화권 특별법 제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전남도가 마한역사문화권의 발전과 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삼석 국회의원, 전남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마한문화권 발전 학술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한다.

"마한역사문화권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포럼은 전남도가 지역발전추진하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에서 개최한다.

권오영 서울대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이영철 대한문화재단연구원 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우승희 전남도 의원, 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임영진 전남대 교수, 임승경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장 등이 발표자와 함께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린 토론을 벌인다.

전남도는 이번 학술포럼에 전국적으로 마한 전문가, 언론인, 국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함에 따라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역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 공감대를 얻어 특별법 제정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마한문화권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특별법 제정 국회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전남의 뿌리인 마한 연구를 위한 전국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산강유역 마한 사회에 대한 꾸준한 조사·연구를 추진해 전남의 고대사를 꽃피웠던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 '통큰 베팅' 현대산업으로 기우나

매입가 현산 2조5천억·애경 1조5천억 써낸 듯 자금력 현산 유리... 애경은 항공사 노하우 장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애경) 컨소시엄 간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어떤 회사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이 애경보다 매입 가격을 약 1조원가량 더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게추가 이미 현산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현산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기존 면세점·호텔 사업과 시너지가 예상되고, 범(汎)현대(家) 차원에서 항공업 진출 문을 다시 연다는 의미도 있다. 애경이 현산을 제치고 아시아나를 품으면 대한항공을 제치고 단번에 국내 1위 항공사로도 약하게 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현산과 애경은 지난 주 마감한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에 참여해 각자 책정한 적정 가격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산 컨소시엄이 매입 가격으로 2조5000억원가량을 써냈고, 애경 컨소시엄이 1조5000억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현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아시아나 인수를 추진하는 현산은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인수 과정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과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114'를 현산에

매각하는 등의 인연을 바탕으로 긴밀한 호흡을 유지해왔다.

현산은 아시아나 인수에 성공하면 현재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는 범현대(家) 차원에서는 항공업 진출로 자동차, 조선·해운과 함께 '육·해·공'을 모두 사업 영역에 두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인수전 초기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을 의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정몽규 현산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의 '통큰 베팅'을 하면서 강력한 인수 의지를 확인했다.

제주항공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애경은 이번 인수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후보로 꼽힌다. 인수전 참여 자체를 공개하지 않던 다른 업체와 달리 애경은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 인수 의지를 알렸다. 애경은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을 국내 3위 항공사로 키운 실적을 앞세워 '입찰 후보 중 항공운송산업 경력이 있는 유일한 전략적투자자(SI)'라며 아시아나 인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애경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략 국제선 45%, 국내선 48%를 점유하게 돼 대한항공을 제치고 국내 최대 항공 그룹으로

순식간에 지위가 격상된다. 애경은 세계 주요 항공사 간 인수·합병 사례를 연구해 집체된 국내 항공산업의 부흥과 시장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아시아나항공 노선과 기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금호산업은 본입찰 서류 검토를 신속히 진행, 이르면 1주일 안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매각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시스함 서해 류성통합 공개

10일 부산 영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군 이지스함 서해 류성통합 공개행사에서 관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해군 합정 공개행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15일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환영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일 전야인 8일(현지시간) 동서 베를린의 통로로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에 영상물이 투영되고 있다.

독일 대통령 "美, 국가이기주의에 맞서야"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일인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미국이 국가 이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중립을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열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서독 분단기인 1987년 6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서베를린을 찾아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장벽을 무너뜨리라"며 연설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 외침을 여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분단기에 소련의 봉쇄 정책에 맞서 서베를린을 지켜내고 독일 통일을 지원했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지적한 셈이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가를 관통하는 분노와 증오, 좌절의 새로운 장벽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독일인들은 협력해서 보이지 않지만 가르느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연설 후 독일의 세계적인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 아래 베를린 슈타츠클레페 심포니가 연주하는 등 기념공연이 펼쳐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남편 요아킴 자우어와 함께 참석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연설과 기념공연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남구 월산동 땅 127㎡ 2층 주택 118㎡ 1층 임대 7천 2층 주인거주 1억6천
- 월산동 무진중 건너편 내대지 234㎡ 원룸 등 적합 3억5천
- 서구 마북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장흥동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 창고 137㎡ 전방 좋은 2억5천
- 곡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급매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할 3300만원
- 충남 대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황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신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동 4323㎡ 유동시설 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터)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방 좋은 1억3천

상가건물

- 완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완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2천 교차로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5억2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 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함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함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2020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향상과 특화된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국제 수행으로 산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 11. 11.(월) ~ 11. 25.(월)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 11. 11.(월) ~ 11. 25.(월)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19. 12. 4.(수)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12. 20.(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